

피아노 연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성향에 관한 고찰

- 중등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

정 진 원*

기악학습에 있어서 '연습'은 연주능력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연구는 연습의 양적 측면과 단편적인 연습 전략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이론을 근거로 전문연주기량 습득을 목표로 하는 중학교 피아노 전공자들의 연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 성향과 현재 연주수준과의 연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별 면접과 설문조사의 결과 학생들의 연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성향'의 차이는 연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요인으로 보여진다.

※ 주제어 : 기악연주능력, 효율적 연습,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차 례

I. 서 론

- | | |
|------------|----------------|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
|------------|----------------|

II. 이론적 배경

III. 본 론

- | | |
|---------|--------------|
| 1. 연구대상 | 2. 연구방법 |
| 3. 연구절차 | 4. 연구결과 및 해석 |

IV. 요약 및 결론

*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강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악기의 연주법을 습득하고 연마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까지는 학습자의 음악적 자질뿐만 아니라 그와 동반되는 많은 양의 노력이 요구된다. 음악악기를 배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악기이든 일정량 이상의 ‘연습’이 따라야만 그 악기를 통해서 표현하고자하는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전문성을 띄는 우수한 연주능력(musical expertise) 습득에 있어서 ‘연습(practice)’이란 음악학습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또는 훌륭한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습해야한다는 보편적인 인식 이외에 연습의 속성이나 그 효율성 또는 연습이 지속적인 기악연주능력의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Erriçson, 1996).

기악연주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행해져왔으며, 연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연습의 양, 기간, 또는 실험적 연습방법의 효과 등과 같은 단편적인 요인만을 다루는데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근간에는 기악학습에 있어서의 ‘연습’을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는 학습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지고 있다(McPherson & Zimmerman, 2002).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연습’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더욱 주목한다. 우수한 연주능력 습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연습이 요구되어지지만 무조건적인 다량의 연습이 반드시 연주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상의 경험이나 몇몇의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이기 때문이다(Hallam, 1997a; Erriçson, 1996). 이와 관련하여 레만(Lehmann, 1997, pp.12-15)은 시간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연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몰입적

연습(Deliberate Practice)’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몰입연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결과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노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전략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몰입연습’성향의 습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같이 ‘연습’이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효율성, 즉 학습에 투여되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과 더불어, 그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느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Bandura, 1997).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스스로의 관리 능력은 학습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이란 개념으로서 이미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는 매우 학습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되어오고 있다.

대부분의 악기연주를 위한 학습이 일주일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한 두 시간의 개인 또는 그룹지도로 이루어지며, 이에 뒤따르는 긴 시간의 연습이 전적으로 학습자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악 연주능력 연마에 있어서 학생이 자신의 연습과정을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와 방법으로 관리하는가는 대한 연구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악 학습에 있어서, ‘연습’을 학습자의 주도적 관리 하에 이루지는 학습의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특히 근간에 들어 몇몇 학자들은 ‘자기조절학습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음악영역 그중 특히 기악학습 영역에 있어서 학습자가 인지적,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과 어떻게 반응하며 학습을 이끌어나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교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Barry & Hallam, 2002; McPherson & Zimmerman, 2002).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기악연주능력 연마에 있어서 연습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연습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학습자의 학습조절 능력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가설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연 연습량의 개별 차를 상쇄 시킬만한 학습조절방법의 차이가 대상 집단 안에서 발견되어지느냐?’와 ‘연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학습조절능력의 차이를 연주 성취도와 연계시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로 제기 되어진다. 이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연구문제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악전공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기의 잠재적 기악전공자들은 ‘연습’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는가?

둘째, 이들의 연습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 방법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는가?

셋째, 연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 방법의 차이가 연주능력수준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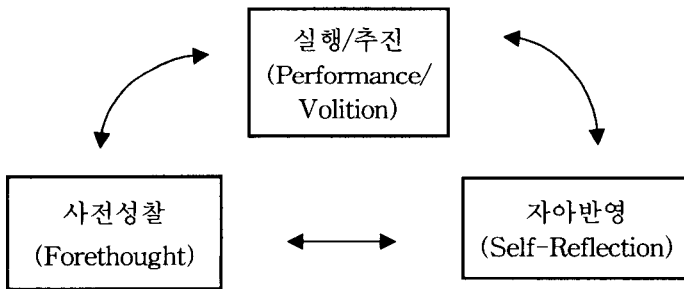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효과적 연습방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편적인 연습방법이 연주의 기술적인 측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험적인 조건 하에 이루어지며 그 적용 범위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연습을 학습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빈번히 거론되어지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어왔다(Hallam, 1997b; Ericson, 1996; Sloboda, 1996). 이렇게 연습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학습’의 연장으로 보고, 그 과정의 이해와 설명을 위한 가능성 있는 패러다임으로 자기조절학습이론(Self-Regulated Learning(SRL) Theory)이 제시되고 있다(McPherson & Zimmerman, 2002).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이는 능동적인 행동 성향을 의미한다. 이때

자기조절이란 상위지식(Metacognition), 동기화(Motivation), 그리고 학습전략(Strategies) 등을 자의적으로 선택, 개선하며, 필요한 학습의 양과 순서 등을 능동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학습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Corno, 1994; Schunk, 1984; Zimmerman & Martinez-Pons, 1992). 반두라(Bandura, 1997)의 연구에 근거하여 줌머만(Zimmerman, 1995)등에 의해 구체화 된 자기조절학습이론은 학습의 원동력을 학습자가 자신의 내재적 조건, 학습 환경, 그리고 학습을 위한 행동의 변인 사이에서 자기학습을 조절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교수 방법으로 교육하여도 학업성취에 계속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의 일부분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차이에서 온다고 본다(Zimmerman, 1998).

‘자발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지를 취하여 실행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기조절학습이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조절학습이론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다양한 변인을 조절하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자기조절학습의 순환적 구조

반두라(Bandura, 1997)는 자기조절학습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의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즉 주어진 학습 과제를 자신과의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교사의 단순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성찰적 과정

을 통하여 적용해 나갈 때 그 결과는 생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째머만은(1995) 자기조절학습에 있어서 자아성찰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지를 순환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조절학습은 ‘사전성찰(forethought)’, ‘실행과 추진(performance /volition)’ 그리고 ‘자아반영(self-reflection)’의 세 단계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반복순환을 통하여 상위 단계로 발전되어간다고 보고 있다. 이 세 영역은 다시 몇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화되어질 수 있다(표 1). ‘사전성찰(forethought)’의 단계는 그 하위단계로 ‘과제분석’ 단계와 ‘자기동기화’ 과정을 포함한다. 과제분석을 통해서는 학습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시도하기 이전에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주어진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설정하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지 등이 고려된다. 이 과정이 잘 준비된 학생이라면 학습도중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보다

<표 1> 자기조절학습의 영역과 하위요소

자기조절학습		
사전성찰	실행/추진	자아반영
* 과제분석: 문제분석 전략분석 * 자기동기화: 자신감 기대결과예상 흥미유발 목표설정	*저가조절전략: 전략실행 자기암시 집중력조절 *자기관찰: 실행기록 새로운 전략실험	*자아판단: 자기평가 원인분석 *자기반응: 자기만족 수용적/배타적 반응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화의 과정에서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과 자신이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정리하고 과제수행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자기동기화가 구체적이고 강할수록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실행과 추진(performance/volition)’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고 실제로 그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과제에 대한 바른 분석이 과 꾸준히 시행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획’의 단계와 연결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인 학생일수록 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며 수시로 그 효과를 점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도 할 것이다. 이 때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학습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집중력 조절, 또는 자기 암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것이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녹음, 녹화, 필기 등의 기록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세 번째로 ‘반성(self-reflection)’ 단계는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단계이다. 자신이 목표했던 바에 비추어 결과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판단하며, 그 판단의 결과는 다시 향후 학습의 방향과 학습에 대한 태도, 나아가 전반적인 학습 자체에 대한 가치결정에 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앞의 두 단계가 충실히 준비되었다면, 비록 학습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 원인을 재능의 부족과 같이 개선 불가능한 이유에 두기보다는 잘못된 목표의 선정, 또는 노력의 부족과 같이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Zimmerman, 1995).

이와 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감당 해내야 하는 ‘노력’이라는 영역을 매우 다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영역특화(Field-Specific)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학습자가 특정영역에 대한 학습이 지속될수록 그 영역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또한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는(보편적 학습성취, 읽기, 쓰기, 수학, 체스, 운동 등)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학습에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보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악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는 ‘연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되어진다(McPherson & Zimmerman, 2002).

Ⅲ. 본 론

본 연구는 기악연주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그 역할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악학습 특히 피아노 연주를 향후의 전공분야로 계획하고 학습하는 잠재적 음악전공학생들에게서 관찰되어지는 연습방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성향과 실기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 연주능력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연습’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피아노를 향후 자신의 전공분야로 계획하고 학습하고 있는 14~16세의 ‘잠재적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는 학습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구체화되는 시기이며 전문적 연주기량 습득을 위하여 양적, 질적으로 심도 있는 연습이 요구되는 시기이다(Lehman, 1997). 특히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지능과 같은 보편적인 기량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영역에 대한 경험과 학습에 의하여 형성되어지는 영역특화적(field-specific) 성격을 띤다(Pintrich,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은 ‘피아노 연주’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조절학습성향’이 구성되는 중요한시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피아노전공을 목표로 하는 14~16세의 서울소재 예술 중학교 재학생 중 13명이 개별 인터뷰에 응했으며, 설문조사에는 32명이 참가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습과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질적 연구의 방법인 개별 인터뷰와 양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대상 학생들이 실제로 ‘연습’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이를 근거로 한 보다 구체적인 설문문항구성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성향의 세 가지 영역을 반영하는 67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나타나는 피아노 연습에 있어서의 ‘자기조절학습 지수’와 가시적 기준으로서의 실기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절차

1) 개별인터뷰

개별인터뷰의 질문문항은 ‘자기조절학습’이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연습과정에 있어서, ‘사정성찰’, ‘실행추진’ 그리고 과제수행이 끝난 후의 ‘자아반영’의 성향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표 2).

인터뷰 방법은 ‘준규격화방식(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서 기초항목은 정해져있되 피 면접자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추가 질문이 첨가되어지기도 하였다. 개별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터뷰 항목에 기초하여 개별 항목화 하였다. 본 연구자에 의한 인터뷰 항목화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소재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3인의 피아노교사가 녹음자료에 의거한 항목화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92.3%(69항목)에서 일치도를 보였다.

<표 2> 인터뷰 영역과 그 내용

영역	인터뷰 내용
개인별 기초자료	* 연령, 성별, 하루평균 연습시간, * 콩쿠르 입상경험(등 수), 지난 학기 실기성적
연습계획 (Forethought)	* 새 과제곡을 받았을 때의 연습과정은? * 연습시간의 배분은? 배분 기준은? * 연습량의 결정은? * 연주나, 실기시험의 준비과정은? * 연습을 얼마나 즐기는가? * 연습은 왜 필요한가?
연습전략 (Performance/ Volition)	* 연습에 자주 적용하는 연습방법은? * 기교적 또는 음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타났을 때 적용하는 방법은?
자기평가 (Self-Reflection)	* 연습 양,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한가? *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그 이유는?

2) 설문지

개별 인터뷰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기조절학습’성향의 세 영역을 반영하는 총83개의 설문항목이 제안되었다. 이들 설문항목들은 ‘자기조절학습’성향의 세 영역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들로 분류되었다. 이들 항목의 ‘자기조절학습’성향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을 위하여 3인의 ‘교육심리학’ 전공자들에게 항목분류에 대한 평가가 의뢰되었으며, 이때 전체의 85.3%인 71개 항목에서 연구자의 분류와 일치하였다(표 3).

이들 71개의 항목 중 동일성이 높다고 지적된 4개의 항목을 제외한 67개의 항목이 설문자료 수집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67개의 설문항목은 5단계 라 이커트 스케일에 의하여 응답되어져, 각 영역별 ‘자기조절학습’성향 점수로 환산되어졌다. 67개의 최종 설문문항과 함께 응답자의 기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학습기간’, ‘하루연습량’, ‘주당 연습일 수’, ‘주당 평균 연습시간’ 그리고 간접적 연주능력 추측을 위하여 ‘지난 학기 실기성적의 백분위 분포(상위 15%; 하위 15%; 그 사이)’의 항목이 추가되어졌다(부록 2). 설문대상은 서울 소재 예술중학교에 재학중인 피아노 전공자이며 총 32명이 응하였다.

<표 3> ‘자기조절학습’영역에 따른 설문항목의 분류

자기조절학습영역	하위요소	설문항목
사전성찰 (Forethought)	자기동기화요소	1~10
	학습분석요소	11~18
실행/추진 (Performance/ Volition)	연습전략	19~33
	실행관찰	34~45
	방해요인조절	46~51
자아반영 (Self-Reflection)	자기평가	52~59
	평가에 대한 반응	60~67

4.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연습에 적용하는 다양한 전략과 자세 그리고 자신의 연주능력과 연습방법에 대한 자아인지의 성향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요인과 학생들의 연주능력 수준과의 상관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별인터뷰를 통해서 대상의 연습에 대한 태도와 방법의 다양성을 알아보고 설문 항목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습의 결과를 어느 정도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질적 분석과 설문지 자료 수집을 통한 양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인터뷰

(1) 대상의 성격

개별 인터뷰에는 한 명의 남학생과 12명의 여학생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학생이 응하였다. 이들이 피아노를 배운 기간은 6.69년으로 대부분 어린 연령에서 피아노 학습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당 평균 연습시간은 27.15 시간으로서 7.8시간의 표준 편차를 보였다(표 4). 13명의 인터뷰 대상

중 3명은 국내의 유명 콩쿠르의 상위 입상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실기 성적이 상위 5%안에 속하는 실기 우수 학생들이었다.

<표 4> 인터뷰 응답자의 학습배경 (N=13)

	평균(Mean)	표준편차(Std.)
연령	14.535	.66
레슨 받은 해 수	6.692	.854
주당 평균 연습시간	27.158	7.894

(2) 인터뷰내용의 질적 분석

13명의 인터뷰 대상의 연주능력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웠으나 '개인별 기초자료'항목을 통하여서 콩쿠르 입상경험 및 지난 학기의 실기 성적이 참고자료로 수집되었다. 이 중 3명은 국내 우수 콩쿠르 상위입상 및 실기성적 상위 5%로서 실기성적 상위그룹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들의 인터뷰내용 중 타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① 연습시간

상위그룹 3인 중 2인의 학생은 실기시험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의 주당 평균 연습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실기시험 준비기간 중에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는 전체 학생들의 주당 평균 연습양인 27.158 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실기시험기간에는 허락하는 모든 시간을 연습에 배려한다고 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3인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몇 시간을 연습하였는가?' 보다는 '오늘 해결하려고 한 부분에 만족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해결 될 때 까지 연습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과제해결에 대한 높은 집착을 보였다.

② 연습 동기화

상위그룹 3인 모두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다하였으며 더불어 연습을 즐기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연습이 중요한 이유를 실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또는 ‘현재 보다 나은 실력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나머지 10인의 학생 중 4인이 ‘다음 학기 실기성적 향상’이 연습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들 상위 그룹 학생들은 실기시험곡 이외에 다른 곡들도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연습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장기적 능력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③ 연습전략

인터뷰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습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단지 상위 그룹 학생들의 경우는 그 방법들의 설명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리듬으로 변화 시켜가면서 부분 연습을 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강세가 주어지는 부분의 터치와 약하게 하는 부분의 느낌을 잘 느껴서 항상 고르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여러 가지 강약으로 연습해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를 찾아야 되요’ 등 자신의 연습전략에 대한 이유와 예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를 보였다. 실기시험이나 콩쿠르 등을 준비 할 경우 역시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n=10)이 친우 음악회 등의 형태를 통해서 공개적인 연주의 기회를 갖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중 상위연주집단에 속하는 2명만이 연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상위집단 중 2인의 학생은 자신의 연습과정을 녹음하여 자주 듣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녹음하여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으나 자주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연습의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연습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 진다. 이 밖에 ‘악곡을 형식, 화성 등을 분석 한다’라는 응답은 상위 그룹에서만 언급되었으며, ‘근육이완체조’, ‘정신집중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적용한다고 답하여 연습전략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적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자기평가

상위 그룹의 자신의 현재 실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타고난 소질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더욱 노력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나머지 10인의 응답자중 4인이 자신은 자질이 부족하여 연습 양을 더 늘린다 하여도 별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자신의 연주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연주능력 상위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서 보다 다양하고 빈번하게 '자기조절학습'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인터뷰내용의 항목분석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은 각각의 전략을 반영하는 단순 문장으로 변환되었다. 변환된 문장은 총 89개였으며, 이중 82%에 해당하는 73개의 문장이 4인의 분석자 가운데 일치율을 보였다. 73개의 문장들 가운데 나타난 대표적인 성향은 <표 5>와 같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연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연습의 준비과정에서는 과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n=5) 부분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강하며(n=2, n=8), 날마다 정해진 연습 양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n=10). 연습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그 자체를 즐거운 일로 생각하기보다는(n=5) 반드시 해야 한다는(n=11) 의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기시험이나 연주준비를 위한 연습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연습방법에 있어서는 '부분연습', '느린 연습', '다른 빠르기 연습', '리듬연습'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연마 연습의 전략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평가 영역에서 나타났듯이 '노력의 중요성'은 인정하는(n=10) 반면, '재능이 부족하다(n=7)'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응답자 중 10명은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

에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n=6)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연습 방법의 옳은지에 대해서는 10명의 학생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별인터뷰 자료의 영역별 내용 분석

영역	내용 ; () 안은 언급횟수
연습계획	<u>과제분석 및 접근</u> ● 과제 곡을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반복하여 곡의 내용을 익힌다. (5) ●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연습 순서를 정한다. (2) ●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 연습한다. (8) ● 날마다 정해진 연습순서에 따라 연습한다. (7) ● 날마다 정해진 연습시간을 지킨다. (10) ● 그 날 연습 할 부분을 정하고 시작한다. (5) <u>연습의 동기화</u> ● 연습은 꼭 해야하는 것이다. (11) ● 연습을 즐긴다. 또는 즐기려고 노력한다. (5) ● 실기시험이나 연주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13)
연습방법●	● 부분연습을 중요하게 여긴다. (13) ● 느린 빠르기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 다양한 빠르기로 연습한다. (9) ● 어려운 부분은 다양한 리듬으로 바꾸어 연습한다. (8) ● 연습곡을 반드시 선행한다. (9) ● 곡의 형식을 분석한다.* (2) ● 곡의 화성을 분석한다.* (1) ● 자주 녹음하며 점검한다. (5) ● 근육이완을 위해서 간단한 체조를 한다.* (1) ●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 (1)
자기평가	● 무엇을 해결해야할 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4) ● 열심히는 한다고 생각되나 바른 방법으로 연습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9) ● 좀더 노력하면 향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 노력에 비해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 ● 나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지도 안다. (4) ● 무엇이 부족한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다. (6) ● 무엇이 부족한 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할 지도 모르겠다. (3)

2) 설문조사

설문조사 자료는 응답자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현재의 연주기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자료의 양적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1.0)'을 이용하였다.

(1) 설문 대상의 성격

설문조사에는 2명의 남학생을 포함한 총 32명의 서울 소재 동일 예술 중학교의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자기조절학습' 성향이 연주능력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알아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에는 실기전공 학생들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척도가 부재 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실기전공 학생들의 전공 수준을 간음하는데 적용되는 기말 실기성적에 근거하여 '상(상위 15%)', '중(상위 15~75%)', '하(하위 15%)'로 임의 등급을 설정하였다. 32명의 학생 중 11명이 '상', 16명이 '중', 그리고 5명이 '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상-3', '중-2', 그리고 '하-1'로 수치화 하여 입력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 실기수준, 그리고 주당 연습량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설문대상자 기초 자료

	N	최저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32	14	17	15.6	.837
연습량(전체)	32	14	42	24.3	6.378
연습량 '상'	11	15	42	25.36	3.57
연습량 '중'	16	20	35	25.5	4.81
연습량 '하'	5	14	24	18.4	3.57

(2) 자기조절학습 성향과 실기수준과의 관련성 분석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개발된 총 67개의 설문항목은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조절학습'의 세 영역을 구성하는 7가지의 요인(사전성찰-자기동

기화, 학습분석; 실행/추진-연습전략, 실행관찰, 방해요인조절; 자아반영-자기평가, 반응)으로 분류되었다. 다섯 단계 라이커트 척도에 의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수량화되어 요인별, 영역별로 합산되었으며 합산 수치는 각 요인 또는 영역의 자기조절학습 성향을 나타내는 점수로 처리되었다. 이들 세부 영역들의 수치는 합산되어 총점(Grand Total)으로서 학생의 연습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성향으로 분석되었다. 각 세부 영역들의 점수와 총 점수는 학생들의 실기수준 등급과 비교되어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7).

<표 7> 자기조절 학습성향 및 연습 양과 실기수준과의 변량분석 ($\alpha=.05$)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변량분석값 (F)	유의도
연습양	집단간	209.47	2	104.73	2.888	.072
	집단내	1051.74	29	36.267		
	합	1261.21	31			
자기조절학습 총점	집단간	4674.79	2	2337.400	3.645	.039*
	집단내	18597.9	29	641.308		
	합	23272.7	31			
사전성찰	집단간	1096.86	2	548.430	7.252	.003*
	집단내	2193.10	29	75.624		
	합	3289.96	31			
실행/추진	집단간	750.94	2	375.472	2.275	.121
	집단내	4786.27	29	165.044		
	합	5537.21	31			
자아반영	집단간	176.19	2	88.096	1.792	.185
	집단내	1425.27	29	49.147		
	합	1601.46	31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는 ‘단순변량분석(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between group)’법을 적용하여 각 요인과 실기수준 등급간의 분산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개 항목 전체의 합을 ‘자기조절학습성향’ 지수로 볼 때 실기수준등급과의 관계가 유의한(유의도=.039)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연습과정에서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실시성적으로 표현되는 연주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학습성향’을 구성하는 세 영역 중에서는 ‘사전성찰’에 대한 지수만이 매우 유의한(유의도=.003)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과제에 대한 분석과 계획 그리고 과제에 대한 의욕이나 자신감이 실행과정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전략의 차이보다 더욱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조절학습성향’의 세부적인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자기조절학습성향’의 세 영역을 구성하는 7가지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했다(표 8).

<표 8> ‘자기조절학습성향’ 하위요소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alpha=.05$

		변량분석값	유의도
사전성찰	자기동기화	6.125	.006*
	학습분석요소	4.993	.014*
실행/추진	연습전략	3.029	.064
	실행관찰	.957	.396
	방해요인조절	1.174	.327
자아반영	자기평가	1.989	.155
	평가에대한 반응	1.931	.163

<표 8>에서 보듯이 ‘사전성찰’영역의 하위요인인 ‘자기동기화’와 ‘학습분석요소’에 대한 분석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습전략’ 영역이 연주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 밖에 연습 양에 대한 변량 분석 값은($F=2.888$)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유의도=.072) 나타나지만 ‘자기조절학습성향’의 총 지수($F=7.252$)와 ‘사전성찰’ 지수($F=3.64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습에 임하는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분석적인 성향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문적인 실기기량 연마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간에서 나타나는 ‘연습’의 성향을 알아보고, 이를 학습의 계획, 실행, 그리고 반성의 과정을 반영하는 ‘자기조절학습성향’으로써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효율적인 ‘노력’의 관리가 연습의 결과를 생산적으로 인도 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개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기조절학습성향’과 실기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조명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기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양의 시간을 ‘연습’에 할애하고 있으나, 적절한 활용방법에 대한 확신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습’에 투여되는 양적 요인보다는 ‘연습’과정에 관여하는 미치는 조절, 관리능력이 ‘연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셋째, 양적 분석을 근거로 할 때 연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성향은 ‘연습’의 효율성을 설명 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연주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전략보다도 ‘자기동기화’요인과 ‘학습에 대한 분석’ 등 단편적인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자기 관리능력의 중요성이 주목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기악학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악 학습에 있어서의 실력 향상이 교수와 관련된 반복적 학습 뿐 아니라 그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하는 효율성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연구에 대한 기초적 접근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바, ‘연습’ 및 ‘학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rry, N. H., & Hallam, S. (2002). Practice. In R. Parncutt & G. McPherson (Eds.), *The science and psychology of music performance* (pp. 151-166).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Corno, L. (1994). Student volition and education: Outcomes, influences, and practice. In D. H. Schunk & B. J. Zimmerman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pp. 229-251). Hillsdale, NJ: Erlbaum.
- Ericson, A. (1996).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An introduction to some of the issue. In A. Ericson (Ed.), *The road to excellence: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in the arts and sciences sports and games*. (pp. 1-50). Mahwah, NJ: LEA.
- Hallam, S. (1997a). Approach to instrumental music practice of experts and novice: Implications for education. In H. Jorgensen & A. C. Lehmann (Eds.), *Does practice make perfec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on instrumental music practice*. (pp. 89-108). Oslo, Norway: Norges musik-khogskole.
- Hallam, S. (1997b). What do we know about practice? In H. Jorgensen & A. C. Lehmann (Eds.), *Does practice make perfec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on instrumental music practice*. (pp. 179-229). Oslo, Norway: Norges musik khogskole.
- Lehmann, A. C. (1997). The acquisition of expertise in music: Efficiency of deliberate practice as a moderating variable in accounting for

- sub-expert performer. In I. Deliege & J. A. Sloboda (Eds.), *Perception and cognition of music* (pp. 161-179). Hove: Psychology Press.
- McPherson, G., & McComick, J. (1999).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musical practic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41, 98-102.
- McPherson, G., & Zimmermann, B. J. (2002). Self-regulation of musical learning. In R. Colwell & C. Richardson (Eds.), *The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pp. 327-3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ntrich, P. R.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452-50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chunk, D. H. (1984). The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y*, 19, 199-218.
- Schunk, H., & Pintrich, P. R. (1996).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nglewood Clieffs, NJ: Prentice-Hall.
- Sloboda, J. A. (1991). Musical expertise. In A. Ericsson & J. Smith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expertise: Prodpects and limits*. (pp. 153-1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oboda, J. A. (1996). The young performing musician. In I. Deliege & J. A. Sloboda (Eds.), *Musical begininggs: Origins and development of musical competence* (pp. 171-1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loboda, J. A., Davidson, J. W., & Howe, M. J. (1994). *Formal practice as a predictor of success and failure in instrumental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Liege, Belgium.

- Winne, P. H., & Perry, N. E. (2000). Measuring self-regulated learning.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532-56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Zimmermann, B. J. (1995).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 A. Bandura (Ed.),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pp. 202-23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mmermann, B. J. (1998). Academic studying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 skill: a self-regulatory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33(2/3), 73-86.
- Zimmermann, B. J., & Martinez-Pons, M. (1992). Perception of efficacy and strategy use in the self-regulation of learning. In D. H. Schunk & J. Meece (Eds.), *Student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Causes and consequences* (pp. 185-207). Hillsdale, NJ: Erlbaum.

ABSTRACT

A Study on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Piano Practice

- focusing on middle-school piano majors -

Chung, Jin-Won

Learning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and developing a high level of performance skills requires not just musical talent but also an enormous amount of effort. Practice, as the most evident form of effort, is a fundamental activity of musicians. Indeed, there is now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amount of time spent in practice is direct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expertise attained. What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in relation to this issue, however, i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practice.

Several studies on practice of musical instruments insist that students need diverse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cognitive, technic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to achieve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expertise(Erricson, 1995; Hallam, 1997; Harnishmacher, 1997). Effective practice, as seen from this perspective, is a process that not only involves cognitive skills but also requires the student to consider a broad range of strategies for dealing with whatever problems may arise. Given this study's belief that instrumental practice is a multi-faceted learning process that involves diverse aspects of the learner,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as a structural learning model (Zimmerman, 1994) holds

out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factors that affect each learners ability to control his/her particular learn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tudents use of self-regulatory strategies in piano practice and to determine how this is related to performance achievement. It is assumed that self-regulated learning (SRL) is a crucial trait of successful learning, especially when students take charge of their own practice sessions in instrumental learning. To prove given hypothesis,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based on interview data, 67 items of 'Self-Regulated Learning' rating scale was developed and 32 sets of questionnaire surve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of statistic analysis(ANOVA) shows that highly successful students choose to manage their practice sessions in very different ways and such SRL-related differences are linked to differences in performance achievement. By focusing on the role of practice in musical achievement and by comparing these stud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SRL, this study seeks to explai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outcomes of practice efforts.

<부록 1> <설문지>

실기 연습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이름:

성별:

연령:

학교:

일주일 레슨 횟수:

지난 학기의 실기 성적:

상위 25% 이상 (), 상위 25% 와 하위 25% 사이(), 하위 25% 이하 ()

당신의 일주일 평균 연습량은 얼마나 됩니까? ()

다음의 질문들은 당신의 실기 연습 성향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각 항의 설명들이 당신의 연습성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일치된다고 봅니까?

해당되는 척도에 표시하십시오.

5 - 매우 일치한다.

4- 어느 정도 일치한다.

3- 일치하지도, 불일치하지도 않는다.

2- 불일치 한다.

1- 매우 불일치 한다.

5 4 3 2 1 : 1) 실기를 잘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5 4 3 2 1 : 2) 나의 전공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내가 무척 즐기는 일이다.
- 5 4 3 2 1 : 3) 때때로 연습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다.
- 5 4 3 2 1 : 4) 나는 연주회를 준비를 위하여 연습하는 것을 즐긴다.
- 5 4 3 2 1 : 5) 연습해야 하는 곡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연습에 몰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5 4 3 2 1 : 6) 계획한 연습 시간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 5 4 3 2 1 : 7) 만일 허락된다면, 배워야 할 곡을 내가 고르고 싶다.
- 5 4 3 2 1 : 8)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5 4 3 2 1 : 9)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한다.
- 5 4 3 2 1 : 10) 대중 연주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싫다.
- 5 4 3 2 1 : 11) ‘오늘은 무엇을 집중해서 연습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연습을 시작한다.
- 5 4 3 2 1 : 12) 새로운 곡을 연습 할 때면,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다.
- 5 4 3 2 1 : 13) 새 과제 곡을 받으면, 기교적, 음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 5 4 3 2 1 : 14) 실기시험 준비를 위한 연습과, 대중 연주를 위한 연습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
- 5 4 3 2 1 : 15) 보다 높은 효과를 위해서 연습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5 4 3 2 1 : 16) 나는 연습시간을 고르게, 비슷한 길이로 분배하는 편이다.
- 5 4 3 2 1 : 17) 레슨 전, 시험 전, 연주 전에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 적이 있다.
- 5 4 3 2 1 : 18) 레슨, 실기 시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연습시간을 치밀하게 계획한다.
- 5 4 3 2 1 : 19) 실수하는 부분은 무조건 수 없이 반복 연습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 5 4 3 2 1 : 20) 연습하는 곡을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면서 생각하곤 한다.

- 5 4 3 2 1 : 21) 나는 연습하는 곡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씩 따로 연습한다.
- 5 4 3 2 1 : 22) 나는 연습하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연습하는 편이다.
- 5 4 3 2 1 : 23)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외워서 연습한다.
- 5 4 3 2 1 : 24) 어려운 부분은 다양한 리듬으로 연습한다.
- 5 4 3 2 1 : 25) 다양한 빠르기로 연습한다.
- 5 4 3 2 1 : 26) 의도적으로 느린 빠르기로 연습한다.
- 5 4 3 2 1 : 27) 곡을 어느 정도 치게 되면 연습 빠르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 5 4 3 2 1 : 28) 강약을 다양하게 바꾸어 가며 연습한다.
- 5 4 3 2 1 : 29) 음악적 표현을 위해서 연습하는 곡의 형식을 분석한다.
- 5 4 3 2 1 : 30) 연습하는 곡의 화성을 분석한다.
- 5 4 3 2 1 : 31) 연습하는 곡의 악보를 떠올릴 수 있다.
- 5 4 3 2 1 : 32) 피아노 없이 손가락만 움직여서 연습하는 곡을 칠 수 있다.
- 5 4 3 2 1 : 33) 연습하는 곡의 주요 부분을 노래로 부를 수 있다.
- 5 4 3 2 1 : 34) 연습을 할 때, 때때로 손을 멈추고 음악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 까를 생각하곤 한다.
- 5 4 3 2 1 : 35) 좋은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
- 5 4 3 2 1 : 36) 나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안다고 생각한다.
- 5 4 3 2 1 : 37)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곡에서 어려운 부분을 정확히 열거 할 수 있다.
- 5 4 3 2 1 : 38) 나는 정해놓은 연습 순서를 따른다.
- 5 4 3 2 1 : 39) 나는 연습일지를 기록한다.
- 5 4 3 2 1 : 40) 친구, 식구들 앞에서 연주하고 그 평을 듣는다.
- 5 4 3 2 1 : 41) 연습과정을 비디오 녹화하여 연구한다.
- 5 4 3 2 1 : 42) 연주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그 이유를 안다.

- 5 4 3 2 1 : 43) 어떤 곡을 잘 연주 할 수 없을 때는 손을 멈추고 그 이유를 생각 해 본다.
- 5 4 3 2 1 : 44) 다른 친구 들 앞에서 연주하고 평을 듣고 싶다.
- 5 4 3 2 1 : 45) 나는 나의 연습 방법이 잘 계획되었다고 생각한다.
- 5 4 3 2 1 : 46) 과제곡을 잘 연습할 수 없을 때는 다음 레슨 때까지 그대로 둔다.
- 5 4 3 2 1 : 47) 연습을 방해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연습을 시작 한다.
- 5 4 3 2 1 : 48) 다른 사람 때문에 연습에 방해를 받는 적이 있다.
- 5 4 3 2 1 : 49) 보고싶은 TV 프로 때문에 연습이 방해받을 수 있다..
- 5 4 3 2 1 : 50) 과제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연습을 그만둔다.
- 5 4 3 2 1 : 51) 나는 항상 집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5 4 3 2 1 : 52) 나의 연주실력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5 4 3 2 1 : 53) 나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5 4 3 2 1 : 54)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 5 4 3 2 1 : 55) 악기를 연주 할 때면, 나의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
- 5 4 3 2 1 : 56) 나의 악기연주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5 4 3 2 1 : 57) 나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5 4 3 2 1 : 58) 내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기까지, 나의 연주실력은 아직 부족하다.
- 5 4 3 2 1 : 59) 나의 연주실력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5 4 3 2 1 : 60) 나는 더욱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 5 4 3 2 1 : 61) 음악적 표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5 4 3 2 1 : 62) 기교연마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5 4 3 2 1 : 63) 피아노를 연습하는 나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 5 4 3 2 1 : 64) 연습을 더 하게 되면, 나는 더욱 좋은 연주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5 4 3 2 1 : 65) 연습을 지금보다 많이 한다해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5 4 3 2 1 : 66) 나는 피아노를 그만둘까 생각해 본적이 있다.

5 4 3 2 1 : 67) 피아노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악기이다.